

# 2021 서울 국제통번역포럼: 통번역 윤리와 전문가 정신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7월 15일,  
2021 서울 국제통번역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지난해에 이어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전년도와 달리 외국법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있는  
국회도서관도 공동 주관기관으로 함께 하게 됨에 따라  
국내의 대표적인 통번역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한 명실공히  
통번역분야의 대표적인 포럼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 권다은  
✉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 사업총괄팀 행정원  
📧 kde21010@klri.re.kr

21년은 '시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전환의 해'로 일컬어질 만큼 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최근에는 'AI 윤리(AI Ethics)'와 관련된 논의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통번역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의 접목으로 인한 다양한 쟁점들을 살펴보고 통역사와 번역사가 갖춰야 할 역량과 직업의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통번역 윤리와 전문가 정신"이 포럼의 주제로 선정되었다.

이번 포럼은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최미경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장과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의 환영사, 박병석 국회의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개회식 이후에는 기초발표와 통번역계의 화제의 인물을 집중 조명한 특별대담, 동시세션 A, B가 이어졌다.

기초발표에서는 통번역학계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두 거장 앤서니 핼 교수(멜버른대학교, 호주)가 '이민사회를 위한 언어서비스 제공-호주의 경험'이라는 주제로 호주의 경험을 통해 다언어 사회에서 통번역 신뢰도에 대한 중요성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코넬리아 초비첸버거 교수(비엔나대학교, 오스트리아)는 '노동 혹은 일로서의 온라인 협업 번역, 그리고 이것이 온라인 협업 번역과 전문 번역에 가지는 함의'를 주제로 무보수 아마추어 번역자들이 주를 이루는 다양한 온라인 번역 활동을 일과 노동 중에 어떤 것으로 개념화해야 할지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2021 서울 국제통번역포럼 포스터 및 발표자 사진

특별대담은 역대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담당하였고, 현 미국 국무부 통번역국의 국장을 맡고 있는 이연향 박사가 참여하여 미국의 통번역 제도와 현황과 통번역사로서의 경험담, 후배 통번역사에 대한 조언 등 심도 있는 대담을 진행하였다. 대담은 이연향 박사가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교수로 재직할 때 제자였던 조주연 통역사가 사회를 맡아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전문 통번역사와 통번역을 전공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가질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뿐만 아니라, 이연향 박사가 교수였던 시절의 이야기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 이연향 박사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도 재밌게 시청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다.

특별대담 이후에는 A세션과 B세션 16개의 발제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A세션에서는 '법률 번역의 실제와 윤리', '통번역사 교육과 인증'을 주제로, B 세션에서는 '통번역 윤리와 전문가정신', '번역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총 19명의 통번역 전문가 및 연구자가 발표하였다.

준비하였던 18개의 발표가 끝난 후 온라인에서 참여자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피드백 세션을 마련하였다. 총 8개국의 통번역 전문가와 연구자들이 모여 포럼에 참여하였으나, 온라인 개최로 직접 만나서 토론을 할 수는 없었기에 이런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자 준비한 자리였다. 참여자들은 이 자리를 통해 서로 인사를 나누고 발표에서는 하지 못했던 이야기, 이번 포럼을 통해 느낀점 등을 나눌 수 있었다.

이번 포럼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로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 총 15개국의 1,000여명의 통번역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다만, 세션 A, B는 동시에 진행되어 시청자들은 세션 A와 B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볼 수밖에 없었고, 다양한 분야의 16개의 발제가 하루 동안 진행되어 발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시간이 부족하여 포럼의 영상을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포럼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8월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다시보기 서비스를 공식 홈페이지(<http://seoul-fiti.kr>)를 통해 진행하였다. 다시보기는 각 발표자별로 국/영문 버전의 영상을 개별로 시청할 수 있도록 VOD 방식으로 운영하여 시청자가 원하는 영상을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포럼은 기존의 다른 국제 및 국내 행사와 달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도록 기획되었다. 모든 발표는 사전에 촬영과 자막, 통역 편집이 진행되었다. 특히 사전 온라인 촬영 영상의 단조로움을 없애고, 영상이 좀 더 생동감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편집 작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예를 들어 줌(zoom)을 통한 영상 촬영 방법뿐만 아니라 스튜



영상으로 환영사를 전하는 김계홍 원장

디오 촬영도 병행하였고, 촬영 시에도 3대의 컴퓨터를 활용하여 발표자의 다양한 모습들이 담길 수 있게 하였다. 포럼 당일 실수 없이 영상이 스트리밍 될 수 있도록 송출 트랙픽을 체크하고, 각 기관의 모든 담당자가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여 영상 끊김 여부, 통역음 크기, 자막 등 문제가 없는지 끊임없이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 행사와는 차별을 주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이번 포럼의 주제인 "통번역 윤리와 전문가정신"에 대한 각 발표자들의 의견이 담긴 사전 티저 영상은 기존의 행사와는 다른 색다른 홍보가 되었다. 그리고 각 세션 사이 Break Time에는 한국 홍보 영상과 주관기관의 홍보 영상 등을 삽입하여 시청자들이 쉬는 시간에도 지루함 없이 포럼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사전 등록 및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얼리버드 이벤트, 시청 인증 댓글 이벤트 등의 다양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여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 덕분에 포럼 전일까지 820여명이 사전 등록하는 기염을 올렸다.

최고의 품질로 통번역의 목적 기능에 맞는 가장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런 의미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전문가 정신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역사와 번역사의 역할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업무 환경 마련,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함양하기 위한 교육 제공 등 모든 것이 전문가 정신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번 포럼을 통하여 통번역 윤리와 전문성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고, 다가올 시대에 필요한 통역사와 번역사의 전문성을 규정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올해는 한국법제연구원이 대한민국법령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대외에 제공한지 30년이 되는 해로써, 이에 좀 더 기본에 충실하기 위하여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대한민국 영문법령을 제공하면서 경험하였던 많은 시행착오와 번역 경험들을 분석하여 보다 나은 품질의 대한민국 영문법령을 제공하고자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고하여 보다 나은 영문 및 중문법령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